

# 노인주택 계획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ettling the New Paradigms for Planning Elderly Housing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환경전공

박사과정 전 경 화

교 수 홍 형 옥

Major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Division of Human Ecology, KyungHee University

Doctoral Course : Jeon, Kyung-Hwa

Professor : Hong, Hyung-Ock

###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paradigm' which works as a theoretical base for planning and managing elderly housing.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urveyed published research works, and analysed the contents and the paradigms of the researches. This is based on the literature survey, and surveyed 66 research works published in the last 8 years. The result of the survey tells us that almost all of the research works done by Korean scholars are based on the rational approach to the design of elderly housing. They emphasize 'functional rationalism' 'technical perfection' 'reasonable program' 'economy and market', etc. However, such qualities as 'character of human being' 'depth of existence' 'identity of culture' 'speciality of place' are not emphasized. This means that paradigms used by Korean scholars are biased, and are far from the plural culture characterizing 21st century. This study, therefore, analysed new paradigms appeared on the recent research works about housing environment, and suggests several new paradigms which would be essential for future planning of elderly housing.

▲주요어(key words) : 패러다임(paradigm), 계획(planning), 노인주택(elderly housing), 주거환경(housing environment)

## 1.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노인주택의 계획 및 그 운영의 바탕이 되는 이론 체계 즉 패러다임(paradigm)을 새롭게 설정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이다. 선진사회의 모델을 답습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확연하게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데, 특히 21세기로 들어오면서 그러한 경향은 확연해지고 있다.<sup>1)</sup> 따라서 근자에는

사회학, 도시학, 건축학, 주거학 등의 분야에서 노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주제는 노인의 사회적 지위, 경제활동, 복지정책, 노동정책 등 다양하게 망라되고 있다. 당연히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의 문제 또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새로운 학문분야로서 '노년학'은 하나의 학문분야로서 자리하고 있다. 노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이슈는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노인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성과물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주제 또한 점차 그 폭을 넓혀가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노인주택에 대한 연구는 그 주제의 시의성은 적절하며, 연구자가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는 그 폭이 넓은 가', '그 사회·문화적 바

있다. 또한 같은 자료에서,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1990년에 5%(214만 4천명)이었으나, 2000년에 6.8%(316만 8천명), 2021년에는 13.1%(662만 5천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 이 논문은 2003년도 두뇌한국21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주 저 자 : 전경화 (E-mail : osilis@unitel.co.kr)

\*\*\* 교신저자 : 홍형옥 (E-mail : hong1215@khu.ac.kr)

1) 통계청의 1991년 「장래인구추계(1990~2021)」에 의하면, 한국국민의 평균수명은 1960년의 55.3세, 1970년의 63.2세, 2000년에는 74.3세, 2021년에는 77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탕은 균형이 있으면서 동시에 현실적인가'. 또한 현실적이지만 한 것인지, 아니면 전향적(前向的)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다가오는 미래사회의 요구에도 부합하는지 등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긴다. 다시 말해서, '노인주거환경의 계획과 운영에 관해서 오늘날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은 무엇이며, 그것은 시대 상황에 비추어서 적절한가'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sup>2)</sup>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근자에 우리 학계에서 진행되었거나 또는 진행되고 있는 노인주택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무엇이며, 또한 그것이 바탕으로 하는 패러다임은 어떻게 설정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만약 패러다임의 설정이 편향되어 있다면, 앞으로 노인주택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설정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것이다.

##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그 성격상 조사와 이론적 탐구를 겸하여야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연구방법 또한 그 두 가지의 성격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조사와 이론적 탐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행한 조사는 문헌조사로서, 지난 8년 간(1995년~2002년)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노인주택과 관련된 연구를 조사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대학원 석·박사과정의 학위논문과, 『대한건축학회논문집』 및 『한국주거학회지』에 실린 노인주택에 관한 연구로서, 그 수는 총 66편에 이른다. 연구 중에서 그 내용이 겹치는 연구 즉 학위논문을 정리하여 학회지에 낸 논문 등은 그 중 상세한 쪽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학술발표대회 등에 발표하여 그 질과 양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하였다. 또한 각 연구기관이 발간한 연구보고서 등도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연구들이 취하는 '대상'과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결국 '무엇'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이론적 탐구는, 오늘날 주거환경에 대한 다양한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그것이 담고 있는 이념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즉 20세기를 지배하던 기능주의와 기술주의가 힘을 잃어가면서 새로이 대두되기 시작한 주거환경계획의 목표와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도 노인주택의 계획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주요한 작업이었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1960년대 이후 주거환경의 계획을 위해서 새로이 대두된 주요한 패러다임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노인주택이라는 특수성의 측면에서 그 가치를 조명하였다. 문헌

조사를 실시하여 그곳에서 제시된 다양한 패러다임들을 그 경중(輕重)에 따라서 추출·정리하였다.

이렇게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친 뒤, 본 연구에서는 그 결과를 대조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즉 오늘날 우리 연구자들이 취하는 노인주택에 대한 '눈'과 근대라는 이념이 쇠퇴한 이후에 새로이 등장한 주거환경을 보는 '눈'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대조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 둘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차이는 무엇이며 또한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국 이 연구는 본질적으로 문헌분석과 분석을 통한 이론적 연구이다.

## II. 우리나라 노인주택의 연구동향과 그에 설정에 패러다임

### 1. 노인주택 연구의 동향

지난 8년 간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노인주택에 대한 연구를 그 주제별로 분류해보면,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이 발견된다.<표 1> 우선, 가장 주를 이루는 연구는 노인주택 또는 노인전문시설의 '계획'에 관한 것이다. 분석한 66편의 연구 중에서 주거환경의 계획에 관한 연구가 50편을 차지하여 전체의 75.7%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류를 이루는 연구가 집합적 환경 즉 노인용 집합주택인데, 여기에 그것과 유사한 내용인 실버타운 계획을 합하면 무려 전체 연구의 27.3%가 집합적 주거환경의 계획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이 취하는 태도는 매우 유사하다. 즉 노인을 '특이한' 사회집단으로 설정하고, 그들만이 모여 사는 독립된 환경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고, 그 적절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 경우에, 노인은 서로 모여 살면서 서로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혜자'로 일반적으로 규정된다. 이렇게 설정된 '상(像)'이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이 설정하고 있는 노인주거계획을 위한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 가장 강조되는 내용은 '커뮤니티 의식'과 '공용공간'이며, 의료시설이 중심이 되는 공동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결론적 제안의 주요내용을 이룬다. 집합적 주거환경 다음으로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은 단위주택 및 실내환경의 계획에 관한 것으로서, 각각 8사례들인데, 결국 총 16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전체 연구의 24.2%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 또한 매우 유사한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노인을 일종의 장애자로 간주하고, 그들의 '행태'를 분석하여, 그들의 퇴행적 행태에 '알맞는' 공간의 배열과 시설의 계획을 제안한다. 동시에 노인의 정서를 일반인의 정서보다 '우울하고 소극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그들의 정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실내공간을 계획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노인주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 특수시설 즉 치매노인

2) 여기서 패러다임의 의미는 토마스 쿤(Thomas Kuhn)이 그의 저서 『과학 혁명의 구조』에서 언급한 내용, 즉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의 규정을 거의 그대로 따르는데, 여기서는 다소 축소된 개념 즉 '어떤 사고나 행위의 바탕이 되는 이론적 틀'로 규정한다.

센터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66편의 연구 중에서 4편의 연구가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수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연구에서도 그 연구의 방법은 다른 연구들과 크게 차이가 없다. 즉 치매노인 등 정신장애를 지니는 노인의 특이한 행태를 분석하고 나열하는 것이 연구의 주류를 이루며, 이것에 대한 '처방'으로 건축계획적인 제안을 제시하는 것이 결론의 주류를 이룬다. 이것은 70년대 이후에 서양학계에 등장하여 유행을 이루었던 '행태계획론'이 그 논의의 바탕이 된다. 이러한 연구동향과 맥락을 같이하는 연구들이 노인의 '의식 및 요구'를 파악하는 연구이다. 4편의 연구가 이러한 범주에 들어가는데, 전체의 6.1%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이 연구들에서는, 노인의 의식과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는 일반인과 '다르다'는 것을 주된 가정으로 설정하고, 그들의 의식과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올바른 주거환경의 계획을 위한 전제로 규정한다. 이들 연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설문 또는 면담을 통한 자료수집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계획적인 제안은 '형태론'에 바탕을 둔 여타 연구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노인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도 그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 8년 간 시행된 66편의 연구 중에서 10편의 연구가 여기에 해당하여, 전체의 15.2%를 차지한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처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제안하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제안의 중심은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이나 시설이다. 말하자면, 앞으로의 사회구조 재편과정에 비추어서 노인주택은 양과 질에 있어서 시급히 요구되며, 공공과 민간이 모두 그 공급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그 논의의 기초를 이룬다. 스웨덴을 위시한 서구사회의 사회복지정책이 소개되고, 그 운영의 모델이 사례로 제시된다. 정부주도의 노인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취해야 할 역할이 제시된다. 또한 민간은 노인주택을 사업의 대상으로 볼 필요가 있으며, 그 사업의 미래적 전망을 제시한다. 동시에 정부가 민간이 시행하는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야 할 제도 및 세제상의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제안하며, 이를 통하여 민간이 유료노인주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제시된다(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3).

노인주택에 대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해보면, 매우 특이한 사항이 발견된다. 그것은 노인주택을 접근하는 상위의 개념 즉 주거환경의 이념적·철학적 측면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지난 8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노인주택에 관한 연구 중에서 주거환경을 '의미', '가치', '상징' 등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다룬 연구는 한두 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편향된 연구동향은 서구나 일본의 그것과 비교하면 다소 특이한 경향으로 생각된다. 물론 그러한 연구는 수행과정이 복잡하고 방법상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그 수의 열세는 특이한 현상으로 보인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을 담은 주거환경을 '의미와 가치'로 바라보기보다는 '단

순한 도구'로 다루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눈에 띄는 연구는 송수련이 행한 석사논문이었다(송수련, 2002). 그의 연구는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한 연구로서, 여섯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주거'에 대한 의식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그들이 지니는 주거의 '실존적 상'을 추적하였다. 이를 통하여, 모든 노인들이 그저 '편리한 주택'을 원하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는 그들의 지나온 삶을 반추시킬 수 있는 '장소로서의 주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노인의 주거문제를 '실존적'으로 다룬 유일한 연구로 파악되었다.

< 표 1 > 노인주택에 관한 연구의 주제분류

주 제	연구수	%
노인주택의 공급을 위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연구	4	(6.1%)
노인주택산업(실버산업) 또는 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6	(9.1%)
<b>1.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소계)</b>	<b>10</b>	<b>(15.2%)</b>
입지 및 광역적 환경계획에 관한 연구	3	(4.5%)
실버타운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연구	7	(10.6%)
집합적 환경(단지 및 주동)의 계획에 관한 연구	11	(16.7%)
단위주거 및 단위평면 계획에 관한 연구	8	(12.1%)
내부공간 및 실내디자인에 관한 연구	8	(12.1%)
특수시설(치매센터 등)의 계획에 관한 연구	4	(6.1%)
계획을 위한 사용자의 의식 및 요구에 관한 연구	4	(6.1%)
가이드라인 또는 모형개발 등 계획상의 원론적 연구	3	(4.5%)
주거환경 계획을 위한 이념 및 철학에 관한 연구	2	(3.0%)
<b>2. 주거환경 및 시설의 계획에 관한 연구 (소계)</b>	<b>50</b>	<b>(75.7%)</b>
<b>3. 주거환경 및 시설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소계)</b>	<b>6</b>	<b>(9.0%)</b>
<b>총 계</b>	<b>66</b>	<b>(100%)</b>

지난 8년 동안 시행된 연구 중에서 특히 노인주택의 '계획'에 관한 연구를 분석해보았다. 노인주택에 관한 연구 중에서 대다수(75.7%)를 차지하는 이들 연구의 질을 '충실함'의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그 연구가 사용한 방법을 분석해보았다. 주택의 계획에 대한 연구는 총 50편인데, 여기에는 광역적인 도시 계획부터 수납공간의 계획에 이르는 다양한 스케일이 포함된다. 이들의 대부분은 '조사'를 바탕으로 일련의 계획적 제안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더러는 개념위주의 이론적 연구도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2>와 같다. 개념위주의 이론적 연구에 해당하는 연구가 총 8편(전체의 16.0%)이다. 이들 연구는 '유니버설 디자인', '인체치수', '라이프 스타일' 등 주택계획과 관련이 있는 '개념'을 가지고 주택계획의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 중에서도 면담·조사 등을 바탕으로 하고 그 결과를 개념적으로 정리하여 전체적으로 이론의 구축에 치중한 연구도 2편이 있었다.

노인주택의 계획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이 '지침', '모델', 또는

‘계획안’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성격의 연구가 42편으로서, 전체의 84.0%를 차지한다. 이러한 연구들 중에서 ‘조사’라는 방법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인데, ‘조사’를 거치지 않고 계획의 지침을 제시한 연구도 상당수 있다. 조사를 거치지 않은 연구는 ‘자료집성’ 등 설계관련 사례집에서 추출한 ‘치수’ 등 관련자료를 사용하는 것이며, 설계안을 제시하는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조사’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는 대부분이 우선 외국의 사례를 제시한다. 이후에 우리나라의 시설을 직접 조사하거나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서 현장에서 추출된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10개 사례에 해당하여 전체의 20.0%를 차지하였다. 실제로 외국의 사례를 직접 조사한 연구도 있는데, 이들은 모두 외국 대학에서 작성된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2편 있다. 그런데, ‘조사’라는 연구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연구 중에서 많은 수가 ‘직접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는데, ‘조사’를 연구방법으로 채택한 34편의 연구 중에서 22편이 이러한 경우가 된다.

결국, 50편의 ‘계획’관련 연구 중에서 44.0%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 연구는 주로 외국의 노인전용주택 또는 의료시설을 평면 등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노인을 위한 주택 또는 시설을 위한 계획지침 등을 제시하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 결국 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의 노인주택을 위한 모델로 사용한다는 상당히 왜곡된 논리를 지니고 있다.

< 표 2 > 노인주택의 계획에 관한 연구방법의 분류

연구 방법	사례수	%
조사와 면담을 통한 이론적 연구	2	(4.0%)
조사를 통하지 않은 이론적 연구	6	(12.0%)
<b>1. 개념위주의 이론적 연구 (소개)</b>	<b>8</b>	<b>(16.0%)</b>
우리나라 사례를 직접 조사한 연구	10	(20.0%)
외국의 사례를 직접 조사한 연구	2	(4.0%)
실제 조사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외국의 사례를 간접적으로 ‘조사한’ 연구	22	(44.0%)
<b>2. 조사를 바탕으로 계획의 지침을 제시한 연구 (소개)</b>	<b>34</b>	<b>(68.0%)</b>
<b>3. 조사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계획의 지침을 제시한 연구(소개)</b>	<b>8</b>	<b>(16.0%)</b>
<b>총 계</b>	<b>50</b>	<b>(100%)</b>

## 2. 우리나라 노인주택 계획의 패러다임

다음으로는 노인주택의 계획을 다룬 연구들이 취하는 이념 또는 패러다임을 분석해보았다. 연구에서 보이는 이념을 파악한다는 것은 기계적인 논리에 의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 연구가 지니는 기본적인 태도를 파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말하자면, 노인의 ‘행태’를 분석하고 그것에 부합되는 설

계안을 제시한 연구라면, 그 이념은 ‘행태학적 실용주의’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포괄적으로는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한 ‘합리주의’를 그 패러다임으로 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Altman, 1975). 또한 노인이 지니는 심리구조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서 파악하고, 노인의 삶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주거환경의 목표를 노인의 삶을 정서적으로 풍요롭게 하는데 두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면 그 패러다임은 ‘현상학적 실존주의’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연구가 취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구분은 합리주의적 접근방법과 3장에 제시한 네 종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 기본으로 하였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는 <표3>에 요약되었다.

< 표 3 > 노인주택 계획의 패러다임

접근방법		사례수	빈도
<b>합리주의적 접근</b>	행태, 동선, 요구에의 부응 등 과학적 분석과 그 결과에 부응하는 합리성이 강조되는 계획을 강조하는 연구	42	(84.0%)
<b>현상학적 접근</b>	‘체험’과 ‘기억’ 등 보이지 않는 현상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미가 강조되는 환경을 제안하는 연구	1	(2.0%)
<b>기타</b>	애매하여 분류가 불가능한 연구	7	(14.0%)
<b>총 계</b>		<b>50</b>	<b>(100.0%)</b>

지난 8년간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노인주택의 계획과 관련된 연구의 84.0%는 명백하게 합리주의적 접근방법을 그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내용이 애매하여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도 그 기본적인 이념은 합리주의적 이념을 따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므로,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합리주의적 접근방법은 과학적 객관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주거환경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합리주의적인 태도는 인간의 일상적인 체험을 과학적 체험으로 바꾸어 ‘삶의 세계’를 자연과학의 대상으로 간주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주의적 태도는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는 넓고 깊은 의문을 모두 생략하고, 단지 이를 사건과 사실의 집합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합리주의가 바탕으로 하는 실증적 방법은 해명(explanation)·계량화·예측·반복성·공적 검증 등을 전제로 하고, 원인과 결과의 인과론적 분석이 요구되며, 개인의 가치관이 개입되지 않은 엄격한 객관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주거환경의 계획에 있어서 이러한 태도는 항상 보편성, 효율성,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을 목표로 시행된다(Bognar, 1987).

건축이론가 보그나(Bognar)는 주거환경에 관한 합리주의적 접근방법을 두 종류로 구분하였다(Bognar, 1987). 첫 번째 접근

방법은, '생산주의적 합리주의(productivist rationalism)'인데, 이것은 과학적 원리에 따라서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 것이 이용의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가를 판단하는 태도이다. 따라서 건물이 지나는 기능과 경제성에 근거하여 공간을 배열하고 오로지 그것을 통하여 그 효율성을 판단한다. 따라서 생산주의적 합리주의는 절대적인 가치중립의 태도를 취한다. 이와 같은 태도를 통하여 계획된 건물은 기술적인 생산물인 '장치'로서 존재하게 된다. 두 번째 접근방법은, '형태주의적 합리주의(formalistic rationalism)'인데, 이것은 건물이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근거하여 건축의 질을 판단하는 태도이다. 이것은 역사적인 원류가 매우 깊은 것으로서, 르네상스의 미학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실증주의적인 형태학과 객관적인 미학이론에 의존하며, 건축형태에 대한 사람들의 객관적인 인식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것은 순전히 디자인과 관계된 것이므로, 생산주의적 합리주의와는 반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형태주의적 합리주의 접근의 결과, 건물은 완벽한 시각적 대상으로 파악되고, 그 결과 모든 건물은 투명하고 뚜렷한 형태와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산주의적 태도와 형태주의적 태도로 대변되는 합리적 접근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약점은 건축에 있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고려가 미미하고 더구나 인간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태도에서 중요한 단어는 '기능', '유용성', '기술', '구조', '형태', '프로그램', '경제성' 그리고 '시장성' 등이다. 반면 '개인의 자유', '존재의 개별성', '문화의 독자성', '장소의 특이성' 등 중요한 가치는 항상 결여된다. 또한 이 두 가지는 모두 환경에 대한 결정론적(determinism)인 입장을 취한다. 이것은 계획가는 항상 우월한 가치판단을 지니는 존재인 반면 사용자는 항상 계획가보다 열등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Lang, 1984). 따라서 건축가들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계획해주는 환경 속에서 '보편적인' 인간들은 그것을 행복하게 향유해야 한다는 태도가 깔려있다. 이러한 결정론적인 태도는 결국 진정한 장소로서의 주거환경보다는 '장치'로서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간은 환경에 대한 수동적인 방관자가 되는 것이다.

### III. 주거환경 계획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21세기를 시작하는 오늘의 시점에 있어서는 노인주택의 계획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앞서 언급한 합리주의적 접근방법을 완전히 포기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합리주의적 접근방법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접근방법이 그것을 보강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최근의 사회학, 지리학, 건축학, 도시학 등 '주거'

를 다루는 학문에서 논의하는 주거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정리하기로 한다.

#### 1. 주거환경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방법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최근에야 건축 및 주거학 분야에 소개되었다. 현상학은 인간의 삶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론의 하나로서, 인간과 환경 사이의 유기적인 유대관계에 관심을 가진다.<sup>3)</sup> 따라서 이러한 접근방법은 합리주의 건축가들이 지니는 주거관을 탈피하고 '장소'로서의 주거를 추구한다. 장소는 피상적인 환경이 아니고, 실제로 경험하고 생활된 공간으로서, 인간에게 매우 친숙한 환경이다. 따라서 장소는 경제적인 공간, 효율적인 공간, 그리고 보기에 좋은 공간이 아니고, 그 반대로, 의미로 가득하고 인간 존재와 진솔하게 관련된 공간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를 창출하는 것이 건축작업의 본질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다. 장소로서의 주거는 대체로 감정적인 의미를 지니서 거친 세상으로부터 피난처가 되는 장소, 나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장소, 나를 안락하게 해주는 장소, 그리고 나의 독자성을 표현해주는 장소 등으로 설명되며, 또한 나를 상징해주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 집'으로 표현되는 주거는 거친 세상 속에서 천국과 같은 곳이며 우리에게 친밀한 곳, 가장 아늑하게 느끼는 곳, 자아정체(self-identity)과 결부된 곳이다(손세관, 1990).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의 주거환경은 완전히 실패한 환경으로 간주된다. 현상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주거를 바라보는 대표적인 학자인 랄프(Relph)는 오늘날의 주거환경을 '비장소(placeless)적인 환경'으로 간주하며 진솔한 삶의 공간인 '장소(place)'와는 대조적인 환경으로 규정한다(Relph, 1976). 또한 도베이(K. Dovey) 같은 학자는 오늘날의 무미건조하고 대량생산된 주거환경에 대하여 '주거상실(homelessness)'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Dovey, 1987). 그는 오늘날 만연되고 있는 '주거상실' 현상의 배경으로서 (1)합리주의와 기술우선주의 (2)주거에 대한 상품화의 경향 (3)관료주의 (4)규모의 거대함과 빠른 건설의 속도 (5)공용공간의 파괴 그리고 (6)건축가들이 지니는 강한

3) 현상학은 행동방법(way of doing)에 관심을 두는 과학적 합리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존재방법(way of being)에 관심을 두는 철학적 태도이다. 행동과학자들이 '행동'을 연구한다면, 현상학자들은 '체험'을 노출시키고 서술하려고 한다. 현상학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과 사고에서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것의 이면(裏面)을 탐색하여 '체험된 현상'의 본질을 찾으려고 한다. 우리에게 깊이 자리하고 있는 관찰과 분석의 습관을 깨뜨리고 가능한 한 편견을 줄여 처음 사물을 대한 것처럼 현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도록 한다. 즉 민감한 예술가들의 감각이 보통사람이 감지하지 못했던 미의 세계를 새롭게 보여주듯 본질을 직관하도록 노력한다. 현상학의 기본목표는 '선입관 없이 물(物) 자체로 환원하는 것'으로서 습관적 사고방식을 벗어나 처음 만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전문직업의식 등의 현상을 들고 있다. 말하자면, 합리적이고 기능적으로만 계획된 주거환경, 그리고 사고 파는 대상으로서의 주거환경은 인간을 위한 장소인 진솔한 주거환경을 구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결정과정으로 대변되는 관료주의가 주도하고 거대한 개발집단이 시행하는 속전속결의 대량생산의 수단으로 생성된 주거환경은 장소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의 구분이 너무나도 명확한 오늘날의 아파트와 같은 환경에서는 장소로서의 주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 세심한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엘리트 귀족주의를 지니는 건축가들의 손에 의해서 결정론적인 태도로 생성된 주거환경은 상당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2. 주거환경에 대한 유형학적 접근방법

유형학적인 접근방법은 현상학적인 접근방법과 마찬가지로 합리주의적 접근법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것은 과학적 방법이 표방하는 '창조된 산물'이라는 주거환경의 개념을 부정하는 태도이다. 대신 계획하는 이미 존재해왔던 형태들을 발견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다시 만들어내는 모방의 기술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결국 건축에서 순수한 창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특히 주거와 같이 인간의 일상적인 생활을 담는 건축은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유형'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서 또는 학문분야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모두에게서 공통되는 것은 유형이 구체적인 형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형태를 만들어내는 구성적 법칙이나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건축유형이란 하나의 문화권 내부에서 역사적으로 축적되고 사회구성원의 다수가 공유하는 건축구성을 위한 기본적인 원리라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유형은 역사적·문화적 산물이다. 결국 주거환경 계획에 있어서 유형적 접근이란 주택계획은 문화적인 접근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즉 주거환경을 만드는 과정은 전통과 공동체들의 종합적인 경험에 바탕을 둔 연속된 프로세스라는 것이다(Moudon, 1994).

주거에 대한 유형적인 접근의 커다란 특징의 하나는 기능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기능적 효율성보다는 오랜 시간 조정되고 다듬어진 형태가 지니는 역사적인 생명력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주택의 공간구성에 있어서 기능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태도는 불편하더라도 의미있고 역사적인 깊이가 있는 주거환경이 더욱 중요하다는 태도를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형학적인 접근은 현상학적인 접근과 유사하며 접근방법은 상이하지만 그 목적하는 바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편리성과 경제성만 강조하는 주거환경에 대한 태도에 커다란 수정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공간적 변화가 있고 인간

적인 삶의 혼돈함이 있는 곳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거환경에 있어서 동선과 공간적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던 과거로부터의 방향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비가 오면 빗소리를 듣고, 눈이 오면 눈의 정취를 즐기고,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두운 곳도 있고, 저곳에는 산이 있고 이곳에는 마당이 있는 집. 이런 집이 좋은 집이라는 발견이 유형학적 접근에 의한 주거관의 변화이다(손세관, 1998).

## 3. 주거환경에 대한 생태주의적 접근방법

주거환경에 대한 생태주의적 접근방법은 역시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주로 하는 서구적인 가치관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겨난 것이다. 이것은 기술우위의 가치관에 대한 심각한 반작용의 결과이다. 르네상스 이후 확립된 서구적인 가치체계 즉 인간우위의 사고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상대적 우위를 정당화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념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기술우위의 사고와 결합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자연은 항상 조정의 대상이 되어왔다. 따라서 모든 가치는 인간과 기술이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며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는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였으며 때로는 완전한 정복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지구가 봉착하고 있는 위기는 이러한 인간과 기술에 대한 우위적 관념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안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탈인간적 세계관' 또는 '자연-인간의 동등적 세계관'이다. 즉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고 자연의 한 구성원일 뿐이라는 관념 즉 자연과 인간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생태학적인 세계관이 대두되었다(구승희, 1999).

생태학적 태도에서의 주거환경 계획은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성장과 변화를 함축하는 주거환경', '전체적이고 유기적인 주거환경', '커뮤니티 의식을 강조하는 주거환경', 그리고 '모든 사용자가 참여하는 주거환경을 지향한다. 이러한 접근에는 '개인'이 강조되기보다는 '모두'가 강조되며, 인공성 보다는 자연성이 강조되며, 첨단적 산물보다는 자연적이고 역사적인 산물이 강조된다(김광현, 1997). 또한 두드러진 환경보다는 숨겨지고 조화된 환경을 지향하며, 지속적인 발전보다는 회귀와 진전의 반복을 강조한다. 또한 공동체의 생활이 강조되고 '마을 만들기'의 관념이 강조된다. 생태학적 주거환경의 계획에서 특히 강조된 것은 공유공간이다. 생태학적 주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더불어 사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공유공간이란 여럿이 서로 나눠가지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읽음'과 '연음'을 동시에 가지는 공간이다. 집합주택에서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잃게되는 것은 생활의 독립성과 프라이버시일 것이며, 반대로 얻게되는 것은 사회적 어울림과 서로 부대끼면서 느끼게 되는 인간적인 정(情)일 것이다. 결국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집합주택은 공유공간이 존재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며, 집합주택 계획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이 공유공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유공간의 효율적인 계획을 통하여 건축가는 건물의 획일성을

탈피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을 창출하는 동시에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게 된다(손세관, 1999).

#### 4. 주거환경에 대한 페미니즘적 접근방법

주거환경에 대한 페미니즘적 접근방법은 이제까지의 주거환경이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조성되어 왔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물리적 환경은 사회구조, 제도, 규범, 가치체계를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그동안의 주거환경은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반영하였고, 그러한 불평등한 관계를 지속·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환경이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조성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주거환경의 변화를 통해 찾고자 하는 노력이 페미니즘적 접근방법이다. 결국, 이러한 접근방법은 주거환경의 변화를 통해 여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평등한 인간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태도이다. 주거환경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어떤 건축환경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여성들의 공간적 체험은 남성들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의 의미 또한 여성과 남성은 다르게 인식될 수밖에 없다. 여성은 주거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정체성을 느끼는 장소로 여기는 반면, 남성은 주거를 물리적 장소로 인식한다(Saegert, 1980). 이렇게 주거의 상징적 의미가 다르듯이 주거디자인이 여성과 남성에게 주는 영향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주거환경 계획은 여성과 남성, 사적공간과 공적공간, 가정과 직장, 교외와 도심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주거환경과 인간활동의 이분법적 구분은 여성이 살아가는데 있어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불평등한 여성의 삶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가사노동으로부터 여성을 자유롭게 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계획이 시도되었다. 북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공동식당과 공동탁아시설을 지원하는 공동주거가 이미 실현을 도와주는 새로운 주거형태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이 크게 성공하지 못한 것은, 가사노동이 지니는 정서적 의미를 간과한 데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과 함께 자녀를 기르면서 함께 앉아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들만의 집을 바란다. 또한 같은 여성이라도 다양한 입장의 여성을 위한 주거환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성노인이나 편모들은 일반적인 가족형태를 구성하는 여성들과는 다른 요구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들이 앞으로 페미니즘적 접근방법이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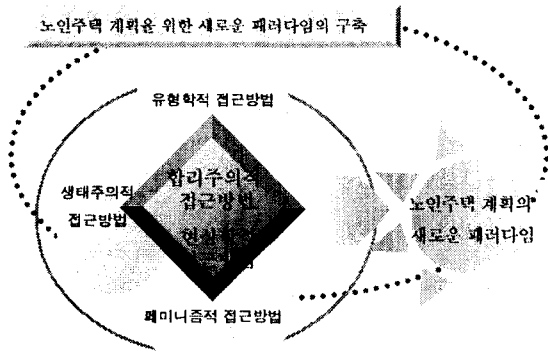
#### IV. 노인주택 계획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

오늘날의 주거환경계획에 관한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살펴보면, 20세기 전반에 걸쳐서 가장 강한 힘을 지니고 있던 접근방법은 합리주의적 접근방법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계획적 접근

은 여기에 대한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주거환경계획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있다. 결국 이제까지의 주거환경의 계획은 그 목표가 편향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그동안 계획가는 생산과 성장을 위한 계획을 하였지만,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는 주거환경을 인간적이고, 복합적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주거환경을 의미있고, 지속가능하고, 문화적이고, 또한 경험적인 실체로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근자의 새로운 접근방법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취한다. 앞서 언급한 현상학적 접근방법, 유형학적 접근방법, 생태학적 접근방법, 그리고 페미니즘적 접근방법은 이러한 측면에서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환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들은 인간, 역사, 문화, 생태, 순환, 조화, 공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오늘날의 주거환경은 변화하는 우리의 생활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동시에 일정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새로운 태도를 견지하는 이론가들은 그동안 합리주의적 접근방법이 간과하였던 새로운 가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즉 모든 가족들의 삶에 생기와 의미를 주며, 노인에게는 삶의 자취에 대한 향수를 달래는데 도움을 주고, 자녀들에게는 삭막한 도시 속의 자극들로부터 편안한 환경을 부여하며, 손자들에게는 정서적 따스함과 진정한 마음의 고향을 부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결국 앞으로의 주거환경은 장소성을 지녀서 의미가 풍부한 환경, 역사성이 풍부하게 표출되는 환경, 자연과 일체화되어서 언제나 그것을 향유하는 환경, 남녀가 모두 평등하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노인주택의 계획에 대한 접근도 그 패러다임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패러다임 즉 합리주의적 접근법에 오로지 의존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노인주택에 대한 좀더 포괄적인 계획목표와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인주택의 계획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의 노인의 상(像) 즉 '외롭게 소외된 노인'이라는 고립된 사회적 존재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의 행태나 신체조건에 계획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의식과 정서에 더욱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의 삶을 담은 주거환경을 '도구'로 보지 않고, 의미로 가득한 정서적 공간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해오던 방식의 피상적인 자료와 정보수집, 그리고 효율성과 경제성에만 치중하던 계획의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앞으로의 노인주택을 위한 계획의 패러다임은 합리주의적 접근과 현상학적·실존주의적 접근이 공존하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 생태주의적 접근, 유형학적 접근, 그리고 페미니즘적 접근방법이 보장되는 것이 그 모형이 될 것이다. 그 모형은 <그림 1>과 같이 표현될 것이다.



< 그림 1 > 노인주택 계획을 위한 패러다임

이렇게 설정된 새로운 패러다임은 노인주택의 계획에 대한 새로운 접근태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주거환경에 대한 노인들의 경험적 측면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은 노인주택에 대한 종래의 분석적이고 프로그램에 근거하는 태도를 버리는 것이다. 또한 효율성, 경제성, 구조적 안정성, 형태적 완전성 등과 같은 종래의 계획적인 목표를 축소하거나 또는 부차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대신 분석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가치를 계획에 포함하는 것이다. 추억, 꿈, 자연에 대한 동경 등을 계획상의 내용과 목표에 포함하는 것이다. 둘째는, 참여디자인의 방법을 폭넓게 채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용자 즉 노인이 주거의 계획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주거환경을 스스로 꾸미는 것이다. 이때 계획가의 태도는 엘리트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반면 사용자가 그들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협조하고 도와주는 역할만을 담당함으로써 결정론적인 태도를 버린다는 것이다. 주거환경의 구성에 있어서 개개인의 취향과 생활방식을 존중하고 사용자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거주자 모두가 만족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기능성에만 바탕을 두는 공간구성을 무시하고 건설과정 자체를 계획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임으로써 기존의 계획방식을 수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래의 태도 즉 평균적 인간을 위한 평균적 건축이라는 종래의 계획가들의 논리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V. 결론

이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주택 계획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을 목표로 한 연구이다. 이 목표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지난 8년의 기간동안 우리나라 학자들에 의해서 시행된 노인주택과 관련한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노인주택에 대한 연구이 대다수는 '계획'에 대한 연구가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계획을 위한 연구 중에서도 집합적인 환경에 대한 연구가 그 양에 있어서 가장 우위를 차지하였고, 단위주택과 실내환경에 대한 연구도 그 수가 작지 않음을

파악하였다. 동시에 노인주택의 계획을 정책과 제도적 측면에서 강조하고 촉진하는 것을 강조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그 양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분석을 통해서 발견한 특이한 사항은, 노인주택에 대하여 그 의미나 가치 등 이념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연구는 한두 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인주택에 대한 연구는 그 내용이 상당히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노인주택의 '계획'에 깔려있는 패러다임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학자들이 가지는 노인주택에 대한 계획은 대다수가 합리주의적 접근방법을 그 패러다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말하자면, 노인주택의 계획에 있어서 '기능적 합리성', '공간의 유용성', '기술적 완전성', '안정된 구조', '완전한 형태', '적절한 프로그램', '경제성과 시장성' 등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반면, '인간의 개성', '존재의 깊이', '문화의 독자성', '장소의 특이성' 등 인간적인 가치는 별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다는 사실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주택의 계획을 위한 패러다임이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21세기가 지향하는 주거환경 계획의 다양한 패러다임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여러 학계에서 논의되어온 주거환경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분석하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네 종류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노인주택의 계획을 위해 설정되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21세기를 생각하면 극단적으로 공업화된 사회, 모든 것이 첨단화된 사회, 고도의 물질문명이 지배하는 사회를 연상하기 쉽다. 따라서 건축과 주거환경에서도 고도의 하이테크가 지배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 성향이 노인주택의 계획에도 반영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21세기에는 기능성보다는 인간성이 우선하는 환경이 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예측이다. 또한 21세기는 그동안의 과학기술의 무한한 진보가 가져다준 불가피한 부작용을 치유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학자들이 많다. 따라서 주거환경의 계획에 있어서도 공급위주가 아닌 수요위주의 '인간자체의 삶'을 위한 주거개발의 방향설정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노인주택을 위해서도 당연히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간성의 회복을 염두에 두는 개발의 소규모화, 노인의 개성을 반영한 주거형식의 다양화, 그리고 노인의 깊은 자아를 반영한 '장소'로서의 주거계획 등이 우리나라의 노인들을 위한 주거환경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 접수일 : 2003년 11월 13일
- 심사일 : 2003년 11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12월 13일



## 【참 고 문 헌】

- 구승희(1999). 환경윤리와 생태철학: 중간결산과 전망. 철학과 현실. 1999년 가을호, 34-36.
- 김광현(1997). 주택의 미래, 미래의 주택. 건축, 9703호, 61-67.
- 손세관(1990). 주거의 의미에 관한 현상학적 고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0, 4, 43-52.
- \_\_\_\_\_(1998). 좋은 주택을 위한 설계방법론. 플러스, 1998년 1월호, 90-96.
- \_\_\_\_\_(1999). 21세기 새로운 주거환경 구축을 위한 전략.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주최 환경심포지움. 21세기 삶과 주거환경의 재구축의 발표논문, 103-115.
- 송수련(2002). 여섯 노인의 주거경험을 통한 '정주함'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병이(1997). 도시와 생태학. 건축, 1997년 12월호, 47-53.
- 이규목(1998).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방법 연구. 건축학회논문집, 88년 2월호, 37-42.
- 홍형욱(1999). 건강한 삶의 질 모색을 위한 과제.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주최 환경심포지움. 21세기 삶과 주거환경의 재구축의 발표논문, 66-79.
- Altman, I.(1988). *Home Environment*(ed.). N.Y :Plenum Press.
- \_\_\_\_\_(1975). *The Environment and Social Behavior*. Brooks/Cole Publishing Co.
- Apleyard, D.(1979). Home. *Architectural Association Quarterly*, 11(2), 4-20.
- Bachelard, G.(1969). *The Poetics of Space*. Boston : Beacon Press.
- Bognar, B.(1987). *Place and Phenomenology*. N.Y: Plenum Press.
- Haryward, G. D.(1975). Home as an Environmental Psychological Concept. *Landscape*, 20(1), 2-9.
- Lang, J.(1984). The Built Environment and Social Behavior: Architectural Determinism Reexamined. *VIA*, 23-34.
- Lim, Gill-Chin & J. Albert(1985). A Search for an Alternative Planning Theory: Use of Phenomenology. *Journal of Architectural Planners*, 2, 1-14.
- Moudon, A. V.(1994). Getting to Know the Built Landscape: Typomorphology, in K. A. Frank(Ed.), *Ordering Space: Types in Architecture and Design*(72-84). Van Nostrand Reinhold.
- Relph, E.(1981). Phenomenology, in Harvey and Holly(eds.), *Themes in Geographic Thought*(99-114). N. Y., St. Martin's Press.
- Saegert, S. & G. Winkel(1980). The Home: A Critical Problem for Changing Sex Roles. in G. W. Werkerle(ed.). *New Space for Women*(34-43). Westview Press.